

‘계룡선녀전’ 문채원

“나는, 선녀 바리스타 커피다방을 하며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소”

고두심과 ‘2인1역’ tvN 11월 5일 첫방송

시청률 12%(닐슨코리아)를 넘겨며 지상파를 모두 제친 로맨스코미디 사극 ‘백일의 낭군님’의 바로 뒤를 이어 또 하나의 퓨전 사극 ‘계룡선녀전’이 온다. 오는 11월 5일 처음 방송할 tvN 월화극 ‘계룡선녀전’은 모두가 아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살짝 코믹하게 비튼 이야기다. 계룡산 자락에서 수수께끼 선문답을 일삼는 할매니는 기가 막힌 맛의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다. 그리고 그는 날개옷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환생을 699년째 기다리는 선녀 선옥님이기도 하다. 그러다 결국 서방님 후보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두 명이라는 것. 한 명은 엄정남 ‘냉미남’ (냉정한 미남), 다른 한 명은 정반대의 따뜻한 남자다. ‘국민 엄마’이자 대선배인 고두심과 2인1역으로 선옥님을 연기할 배우 문채원(31·사진)은 3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선옥님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붉은 꽃을 꽂은 푸근한 외모의 할매이지만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채원은 “1인2역이 아니라 2인1역이라

고두심 선생님을 현장에서 자주 보였지만, 같이 연기할 수 있는 때는 없다. 반가운데 늘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다. 선생님의 전작 ‘나의 아저씨’도 인상 깊게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현민, 서지훈에 대해서는 “현민 오빠는 작품 속에서와는 달리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아 같이 연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훈이는 기존에 성숙한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친분을 자랑했다. 그는 이어 “‘계룡선녀전’은 스트레스받지 않고 볼 수 있는 드라마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방님 후보’ 중 하나인 정이현 역을 맡은 윤현민 역시 “굉장히 즐겁게 찍은 작품이다. 시청자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CG 등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가 이뤄진 드라마인데 이런 작품에 참여한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 김금 역의 서지훈은 “첫 주연작인데 큰 기회”라며 “남다른 각오를 갖고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구단 미나, 전수진, 안영미, 안길강, 김민규, 황영희 등도 출연한다. 이 작품은 완결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연출은 그동안 ‘폼위있는 그녀’(2017) 등 여러 히트작을 내놓은 김운철 PD가 맡았다. 김 PD는 ‘원작 주제가 꿈과 기억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 인연을 찾아가는 이야기



였고 서사가 독특해 끌리게 됐다.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시선도 인상적이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는 또 “점수(미나)가 다양한 동물로 변하는 등 국내 드라마에서 CG(컴퓨터그

래픽)가 제일 많은 작품일 것”이라며 “그래서 사전제작으로 6개월 전부터 촬영했다. 그런데도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11월 5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전국팔도 이장 다 모여라”

KBS 1TV ‘전국이장회의’ 오늘 첫 방송



전국 이장들을 다 모아 지역별 이슈를 청취한다며 그야말로 ‘민심 청취’가 아닐까. KBS 1TV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비상소집-전국이장회의’를 31일 처음 방송한다고 30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이장들을 초청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내 이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듣는 포맷이다. MC는 개그맨 남희석, 김준현과 방송인 사유리가 맡았다. 남희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 출연료 없

이도 방송하겠다”고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 김준현은 “이장님들이 첫 녹화 때는 긴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풀리니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시더라”며 “토론도 뜨거워져 제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더라. 이장님들이 솔직하고 타격감 있는 토크를 해주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미 구정특집으로 ‘이장 vs. 부녀회장’ 편까지 꾸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후 7시 35분 첫 방송. /연합뉴스

채연 가수 데뷔 15주년 ... 3년 반만에 컴백

데뷔 15주년을 맞은 가수 채연이 다음 달 새 음반을 발표한다. 30일 소속사 차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채연은 11월 12일 15주년을 기념하는 싱글 음반을 낸다. 2015년 6월 싱글 ‘안봐도 비디오’ 이후 3년 반 만의 컴백이다. 중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채연은 이번 신보를 중국에서도 동시 발매한다. 소속사는 “채연이 지금도 중국에서 한류 스타로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 활동뿐 아니라 중국어권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년 1집 ‘잇츠 마이 타임’(It's My Time)으로 데뷔한 채연은 ‘위험



한 연출’, ‘흔들려’, ‘둘이서’ 등을 내고 색시 콘셉트 댄스 가수로 사랑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Slot, and Description. Rows list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programs like '왕초보 영어',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최고의 요리비결',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1일 (음 9월 23일 丙申)

Table with 3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etc.), Birth Year Range, and Fortune Prediction. Includes text like '36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and '48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